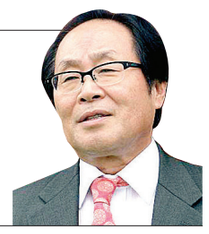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자연이 보내는 경고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지구 역사엔 많은 천재지변 존재
최근 온난화로 인한 재해는 人災
2000년 환경회의서 인류세 등장
'마지막 시대 될 수 있다'는 경고

환경 파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 함께 사는 주민들
불교 궁극적인 목표는 '이고득락'
연기법, 생명공동체를 위한 지혜

지구별의 긴 역사에서 수많은 '천재지변'이 있었다. 땅과 바다가 뒤바뀌는 대지진에서부터 화산 폭발, 대홍수, 긴 가뭄 등이 있었다. 지구별에 사는 중생들의 생존과 삶의 양식은 항상 이 천재지변에 좌우되곤 했다. 이 천재지변은 어찌 보면 지구 생명체의 자기 조직화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지금 '인재지변(人災地變)'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지구 생명체는 지구별의 역사상 제일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생명종의 급격한 감소,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 지구별의 생명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 등 일일이 지적할 수 없도록 많은 징후가 있다.

2000년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국제회의에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인 '충적세'에 이어 '인류세'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인류세'는 경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지구 생명체의 제일 위험한 존재로 거론되고 '인류세'는 지구별의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보면 점점 인류세의 위험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종래에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몸으로 체감된다. 조그만 마당에 다래나무를 30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데, 다래꽃이 피는 봄만 되면 벌들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진동했는데 올봄에는 적막하기만 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니 섬뜩해졌다.

왜 이렇게 인간이 지구 생명체에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였는가? 바로 인간이 지닌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인간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 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탐진치(貪瞋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인재지변은 바로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다. 욕망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욕구이다. 욕망 자체는 선악을 가리기 이전의 상태이다. 문제는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이다.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가 없을 때 욕망은 탐욕의 독으로 변한다.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가 연기론적 세계관이다.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그들은 상호의존해 생성되고 존재하고 멸하는 것이다. 연기법의 위대함을 체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붓다의 제자 아난다도 연기법의 심심 미묘함을 모르고 "너무 간단합니다"라고 했다가 꾸중을 들은 사례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식구조는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고 이러한 이원적 사유 틀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한다. 그런데 연기론은 이를 통합시키면서 연기적 질서를 제공한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지금 지구별과 지구 생명체는 큰 생멸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불교에 있다. 붓다의 연기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과 적용 대상이 확대돼왔고 시대의 요구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어왔다. 이제 연기법은 지구 생명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자기 조직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도의 역할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

글을 끝내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환경파괴의 고통을 받는 자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사는 가난하고 선량한 주민이라는 점이다. 이를 어쩌랴.



송마나의
시절인연

절식, 음식의 道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추석이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오곡과 과일들이 풍성하다. 주먹만 한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새큼한 과즙이 입 안 가득 터져 여름동안 잃었던 입맛을 되살아나게 했다. 아삭아삭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잠시 후 뱃속에서 커다란 요동이 벌어졌다. 갑자기 밀려드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소화제를 삼키는데 주역 산뢰이(山雷頤)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이(頤)는 턱을 뜻하는데 입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괘의 형상은 입을 닮았다. 위와 아래에 있는 양(⚊)은 위턱과 아래턱을 가리키고, 중간의 음(⚋)들은 위턱과 아래턱에 달린 이빨을 상징한다고 보면 영락없는 입모양이다.

입은 위턱과 아래턱이 같이 움직여서 음식을 씹는 것 같지만 위턱은 움직이지 않고 아래턱이 움직인다. 괘상 역시 상괘 간(艮 ☶)은 멈춰 있는 산(山)으로, 하괘 진(震 ☳)은 움직인다는 동(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괘가 움직여 멈춰있는 상괘와 만나



그림 · 최주현

입 안에서 음식을 씹는다. 입 안의 이빨이 위 아래로 가지런히 있는 것도 씹기 위함이다.

입은 먹는 것만 아니라 말하는 것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대상전〉은 "山下有雷 頤. 君子以愼言語節飮食.(산하유뢰 이. 군자이신언어 절음식.)"이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이(頤)는 기른다(養)는 뜻으로 해석한다. 산 아래 우레가 요동치는 것이 이(頤)다. 군자는 이 이괘의 형상을 본받아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신중히 하여 덕을 기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절제해 몸을 기르라고 한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석가는 일중식(一中食)으로 대낮에 한 번 음식을 드셨는데, 그것을 점심(點心)이라고 한다. 점심은 마음 한가운데 진리의 점을 찍는 것이지 기름진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다. 간디도 일식을 했고, 유영모는 세끼 식사를 저녁에 한 번 해서 다석(多夕)이라 불렀다.

오늘날은 TV를 틀면 온통 먹는 이야기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은나라 때 문왕은 인간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頤貞吉. 觀頤 自求口實(이정길. 관이 자구구실)"이란 괘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일깨워주었을까? 이(頤)의 도가 바르게 되어야 길하다. 이(頤)를 통찰하여, 자기 스스로 입(口)에 채울 것을 구하라고 한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를 궁구하여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던가. 설익은 말은 내뱉고, 달콤한 음식은 가득 씹었던 내 입, 부끄럽다. 〈작가〉

社 說

불교중흥 위한 백만원력 지속돼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불사에 사부대중 원력을 모아냈다는 데 있다.

취임 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종교계는 물론 국가 · 사회적 재난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조계종은 원행 스님의 확고한 원력과 신념에 기반해 종단 대작불사의 기틀을 다졌다.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단순한 모연불사를 넘어, 불자 개개인의 서원과 정성을 차곡차곡 모아내는 토대였다.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 원행 스님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계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인연들에게 저서 〈당부〉를 선물하며 동봉한 편지글이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이유다.

원행 스님은 편지글에서 지난 4년 임기 동안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애정과 소회를 밝혔다. 대내외적 어려움을 딛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사 고심하고 숙고했던 심경도 전했다. 스스로 지난 4년 임기를 되짚으며 "불교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행 스님의 제36대 총무원장 임기는 9월 27일 만료된다. 그러나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하나로 모인 불교중흥의 서원은 향후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할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37대 집행부에서도 그 원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힌남노' 수재민에 자비의 손길을

'괴물 태풍'으로 불리며 온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상처가 자못 크다.

불자들이 우려했던 사찰 피해는 경미했으나 한반도 남쪽지대, 특히 경북 포항 일대는 시간당 최대 110.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포항제철소 일부가 침수되면서 용광로 가동이 중단될 만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용광로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것은 쇳물을 처음 뽑아낸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9월 7일 오전 기준, 포항에서만 9명이 숨졌고 실종과 부상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1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다. 부산에서는 방파제를 넘은 파도로 해안도로 곳곳의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8만 8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고 4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했던 것에 비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덜하기는 했지만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조계종은 이번 태풍으로 사찰 피해는 크지 않지만 수재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30일까지 '힌남노'로 인한 피해 수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을 실시한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태풍 예고 때부터 전국에 운영하는 사회복지 산하 시설에 피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긴급모금으로 모연된 기금은 수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태풍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다독여 줄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